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 ◎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43만 8천 명 증가하여, 지난 달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
 -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1~11월 평균 60.3%로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
 -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1~11월 평균은 65.4%)
- ◎ 11월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양상은 이전과 거의 비슷함
 - 큰 폭의 인구 증가에 힘입어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인구가 줄어든 청년층과 30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에 그쳤음
 - 여성이 취업자 수 증가에서 남성과 대등
 - 정규직과 임시직의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 다만 일용직 취업자 수도 증가로 전환
 - 최근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금융보험업과 농업, 기타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의 수는 지난달에 이어 줄어들었으나,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보건복지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
 - 이직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입직은 증가로 전환

- ◎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는 50대 이상과 청년층의 취업자 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41만 4천 명 증가(50대 19만 3천 명 증가, 60세 이상 22만 1천 명)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 인구 감소(5만 9천 명)에도 불구하고, 4만 9천 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10대의 큰 인구 감소를 극복한 취업자 증가와 20대 초반(20~24세)의 큰 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 증가세가 두드러짐
 - 30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 30대 후반의 인구 감소를 넘어선 취업자 수 감소로 인함. 남녀 동반 감소
 - 40대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증가세 유지
 - 10대는 도소매와 기타서비스업, 30대 후반은 도소매와 공공서비스, 40대는 제조업과 공공서비스, 50대 여성은 농업과 제조업, 기타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거나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 ◎ 종사상 지위로 보면, 상용직과 임시직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올해 2월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시직은 증가로 전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세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는 지속
 - 상용직은 33만 2천 명이 증가. 상용직 증가는 50대(22만 1천 명), 60세 이상(7만 9천 명), 15~24세(4만 2천 명), 40대(3만 9천 명)가 주도. 업종별로는 제조업(17만 명), 도소매업(7만 4천 명), 보건복지업(9만 명)이 주도하였음. 최근 상용직 증가폭 축소는 30대와 40대의 추세적 감소세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임시직은 14만 6천 명이 증가. 15~24세(7만 7천 명)와 60대 이상(7만 명)이 주도.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만 9천 명), 음식·숙박업(5만 6천 명), 보건복지업(5만 9천 명), 건설업(3만 9천 명)이 임시직 증가 주도
 - 일용직은 3만 1천 명 증가. 60세 이상(5만 명)이 일용직 증가 주도. 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3만 5천 명)가 주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 3천 명 증가. 거의 전 연령대(특히, 60세 이상과 30

- 대)에서 증가. 건설업(2만 9천 명)과 음식·숙박업(3만 4천 명)이 증가세를 주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 4천 명 감소. 거의 전 연령대(특히, 40대)에서 감소. 개인서비스업(4만 명), 농림어업(1만 8천 명), 운수업(1만 6천 명), 음식·숙박업(2만 3천 명)의 감소폭이 큼
 -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7천 명 감소. 거의 전 연령대에서 감소
-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의 증가 주도. 건설업 취업자도 큰 폭으로 증가.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큰 감소세는 다소 둔화
-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감소는 주로 60대 이상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에서 일어남. 감소세 둔화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조업은 10만 2천 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주로 20대(6만 2천 명)와 50대(5만 2천 명) 남성(9만 6천 명) 상용직(17만 명)에서 증가했으며,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5만 2천 명)에서 고루 증가. 추세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는 주로 상용직에서 일어났음. 전자부품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
 - 서비스업은 34만 4천 명 증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50대 이상(32만 7천 명) 여성(27만 4천 명) 상용직(18만 9천 명)과 임시직(15만 5천 명)에서 증가하였으며,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28만 명)에서 증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3만 6천 명), 음식·숙박업(7만 7천 명), 보건복지업(15만 8천 명), 교육업(6만 7천 명)이 주도. 그러나 금융보험업(3만 4천 명), 공공행정(4만 3천 명), 개인서비스업(4만 6천 명), 가구내 고용(5만 2천 명)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달에 증가로 전환한 사업서비스의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며, 음식·숙박업의 증가폭은 축소. 음식·숙박업 증가폭 축소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은 8만 4천 명 증가. 취업자 증가는 남성 임시직(3만 9천 명)과 비임금근로자(5만 1천 명)가 주로 증가하였으며, 일자리는 중소기업(10만 2천 명)에서 증가
- ◎ 직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단순노무종사자도 크게 증가. 추세적으로는 서비

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증가폭은 크게 확대(13만 1천 명)

- 단순노무종사자 증가는 주로 60대 이상에서 일어남. 업종별로는 운송관련과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업

◎ 입직은 증가하고 이직은 감소

- 입직은 8만 명 증가. 일용직(5만 2천 명)에서 주로 증가. 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3만 4천 명)와 건설업(2만 5천 명)에서 주로 증가
- 이직 감소는 주로 '개인, 가족 관련 이유'(2만 8천 명)와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경영 악화'(3만 5천 명)로 인한 이직 감소에 기인. 그러나 '작업여건 불만족'(3만 명)과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1만 4천 명)로 인한 이직은 증가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4년 9월 명목임금(3,333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2.0% 하락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538천 원)은 초과급여(10.1%)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3.1%) 상승폭의 둔화와 특별급여(-21.4%)의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2.4% 하락.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상승률은 2014년 들어 3% 초반에 정체. 큰 폭의 특별급여 하락은 추석상여금의 영향으로 판단됨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1,339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1.7% 하락

◎ 2014년 1~9월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2.1% 상승에 그침

- 전년동기대비 2.0%p 감소하면서 상승폭 둔화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356천 원)은 정액급여(3.2%)의 상승폭 둔화와 특별급여(-5.7%)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1% 상승
- 임시·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1,384천 원)은 전년동기대비 0.5% 상승에 그침. 이는 전년동기대비 7.1%p 감소

- ◎ 2014년 1~9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0.6% 상승
 - 전년동기대비 2.1%p 감소
 - 2014년 1~9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전년동기 수준과 같은 반면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폭이 커 실질임금 증가율은 0.6% 기록
 - 한편, 2014년 9월 실질임금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3.1% 하락하면서 0%대 상승률(5개월 연속)에도 미치지 못함

- ◎ 2014년 10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4.4%
 - 2013년 10월 인상률(3.5%)에 비해 0.9%p 상승
 - 2014년 10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51.5%로 전년동월 56.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 ◎ 2014년 9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로(18일→19일)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 2014년 9월 근로시간은 162.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0시간(4.5%) 증가
 -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67.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08.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4% 감소

- ◎ 한편, 2014년 1~9월 평균 근로시간은 0.9% 감소(20.5일→20.3일)
 - 2014년 1~9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0.3시간으로 전년 동기(171.8시간)에 비해 1.5시간 감소
 - 2014년 1~9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175.8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 상용총근로시간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초과근로시간은 4.9% 증가
 -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117.2시간)은 4.8% 감소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